



꼬리에 꼬리를 무는
책들의 연쇄,

『마녀의 연쇄독서』

김이경 지음 | 256쪽 | 12,000원

- 책 함께 읽는 여자,
마녀 김이경의 세 번째 책 이야기
- 책을 통해 세상을 읽고 타인의 고통에 다가가며
자신을 돌아본다
- 그저 책이 이끄는 대로 책의 꿈무늬만 따라가는
연쇄독서의 마법!
- 책 읽는 재미를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연쇄독서의 묘미를 보여 주다

“처음엔 내가 책을 택하지만 언젠가부터 책이 나를 부릅니다.
이 책이 저 책을 낳고 한 권의 책이 술한 책들의 도화선이 되어
책에서 책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독서의 연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소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독서가 연쇄에 연쇄를 거듭하며
스스로도 놀랄 근원의 독서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베스트셀러나 추천 도서 목록을 좇아 읽을 때는 경험하기 힘든
의외의 만남이고 시야의 확장이지요. 연쇄 독서의 매력은 거기에 있습니다.
뜻밖의 책을 읽고 뜻밖의 세상을 만나고 뜻밖의 가르침을 얻는 즐거움,
연쇄 독서에서만 느낄 수 있는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글쓴이의 말」 中

1. 마녀* 김이경의 책 읽기

저자인 김이경은 책 읽기를 좋아하는 독서가이며, 소설·서평·칼럼 등을 쓰는 작가이자, 오랫동안 글두레독서회에서 강사로 책읽기 모임을 꾸리고 있다. 한때는 출판사에서 주간으로서 책을 기획, 편집했던 출판인이기도 했다. 책을 읽고, 쓰고, 만드는 경험을 모두 해 본 독특한 이력의 작가다. 전작인 『순례자의 책』(뿌리와이파리, 2009)과 『마녀의 독서처방』(서해문집, 2010) 역시 화두는 책이며, 『마녀의 연쇄독서』를 출간함으로써 ‘책에 대한 책 3부작’을 완성한 셈이다.

『순례자의 책』은 동서고금의 다양한 시공간을 배경으로 삼아, 책에 관한 기발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10개의 단편 소설로 묶어 냈으며, 두 번째 책인 『마녀의 독서처방』에서는 사소한 일상의 필요부터 깊은 마음의 상처까지, 책에서 해결책을 찾고 책에서 위로를 받아온 자신의 경험을 나눈다. 세 번째 책인 『마녀의 연쇄독서』는 책의 뒤를 밝으면서 확장된 스물네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세 권 모두 책에 대한 책이기는 하나 각각 개성이 뚜렷하다. ‘역사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글쓰기’에서 ‘영혼을 위로하는 글쓰기로,’ 그리고 ‘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글쓰기’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책뿐 아니라 여러 매체에서 꾸준히 책에 대한 글을 써온 김이경은 팬들이 꽤 많다. 그의 글은 책을 통해 세상을 읽고 타인의 고통에 다가가며,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이다. 『마녀의 연쇄독서』는 그의 이런 글쓰기가 가장 잘 드러난다. 예민한 감수성과 호기심으로 1년 동안 때로는 즐겁게, 때로는 고통스럽게 책의 뒤를 쫓아 스물네 번의 연쇄를 엮어 나간 독서의 여정. 이 책은 그런 책이다.

* 김이경은 이 책 『마녀의 연쇄독서』가 그렇듯 서평을 쓸 때는 ‘마녀’라는 별칭을 사용하는데, 이는 “주위에서 생각하듯 성격과 외모가 마녀를 닮아서가 아니라, 책을 읽을 때만큼은 마녀처럼 두려움 없이 독자적인 시선으로 읽겠다는 다짐의 표현”이라고 한다.

저자 김이경은 이화여대와 동대학원에서 역사학을 전공했고 시간강사 생활을 했다. 그 뒤 방송통신대에 편입해 영문학을 공부했으며, 이때 교내 문학상에서 평론 부문佳作에 당선되어 오랜 문학의 꿈을 되살렸다. 그 뒤 모 출판사에서 편집주간으로 일하며 5년 동안 근 2백 종에 달하는 책을 펴냈으며, 지금은 작가로서 글쓰기에 전념하고 있다.

작품으로는 소설집 『순례자의 책』, 단편 『이것은 옛날이야기』(『좋은 소설』 수록)를 비롯해 서평집 『마녀의 독서처방』, 그림책 『인사동 가는 길』, 『창덕궁 나들이』 등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 『세노 갓파의 인도 스케치 여행』, 『고고학자와 함께하는 이집트 역사기행』, 『청소년을 위한 삼국유사』 등이 있다.

2. 연쇄독서 : 뜻밖의 책, 뜻밖의 세상, 뜻밖의 즐거움을 만나다

책꽂이에 잔뜩 꽂혀 있는 책들을 보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사람이 많다. 보는 것만으로도 뿌듯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뿌듯함과 의무감은 동전의 양면이다. 읽지도 않으면서 책을 사 모

으지는 않는지, 그러면서 ‘읽어야 하는데, 읽어야 하는데……’ 하며 괴로워하지는 않는지? 1년에 1백 권 읽기, 베스트셀러나 권장도서 찾아 읽기 등 목표 달성형 독서를 하지는 않는지? 결국 우리는 ‘책을 읽기 위해서’ 책을 읽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책은 ‘책을 읽는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한다. 저자는 독서에 대한 우리 안의 강박에서 벗어나 아무 생각 없이 책의 꿈무늬를 좇아 보라고 권한다. 그럴 때 뜻밖의 책을 읽고, 뜻밖의 세상을 만나고, 뜻밖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 책에서 저자가 하나의 책에서 다음 책으로 연쇄를 이어가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책을 읽는다는 것이 단순한 독서가 아니라 뜻밖의 즐거움과 마주치게 되고, 마음으로 이해하게 되는 ‘깊은 독해’의 영역임을 세삼 깨닫게 된다. 우리가 어느새 잊어버리고 있던 그 즐거운 느낌을 말이다.

3. 24가지 주제에 대한 ‘깊은 독해’

이 책은 스물네 꼭지로 이루어져 있고, 앞 책에서 다음 책으로 자연스럽게 연쇄가 일어난다. 제인 오스틴의 소설 <엠마>를 읽고, 주인공 이름이 엠마인, 귀스타브 플로베르의 소설 <마담 보바리>를 읽은 후, 플로베르를 찾아 떠나는 독특한 책인 <플로베르의 앵무새>를 읽는다. 그러다가 멸종 직전의 앵무새에 대한 책, <스픽스의 앵무새>를 손에 쥘다. 이런 식으로 연쇄가 일어나지만 각 연쇄에는 독립적인 주제가 있다. 저자는 책을 만날 때마다 그 책과 화두에 푹~ 빠져든다.

예컨대, 연쇄1에서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의 경우 지긋지긋하리만큼 장황한 묘사(예컨대, 모자에 대한 묘사가 12줄)에다가 5백 쪽에 달하는 소설을 투덜거리며 다 읽었으나, 마지막 문장을 읽고 나서는 자신이 잘못 읽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때 저자는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으며, 자신이 지루하다고 생각했던(그러나 역자가 작품해설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했던) 문제의 대목을 네 번이나 읽는다. 그리고 나서는 독서를 불편하게 만들 만큼 진 빼는 묘사는 작가의 치밀한 계산이며 의도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나 같이 천박하고 어리석은 인물들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혐오감을 자아내고 한줌의 카타르시스도 느낄 수가 없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그들과 내가 똑같은 인간임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플로베르의 의도였음 또한 알게 된다. ‘상처를 입히는 거친 속옷을 사랑하는 고행자처럼’ 글쓰기에 매달렸던 플로베르를 통해 ‘글을 쓴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저자는 단순하지 않은 스물네 가지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펼쳐 놓는다. 글을 쓴다는 것, 책을 읽는다는 것에서 시작된 연쇄는 동물에 대한 인간의 사랑과 동물의 멸종, 언어의 멸종, 관습과 편견, 세상과의 불화, 민주주의, 인권과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사, 자살, 경계에 대한 의심, 젠더와 섹슈얼리티, 동성애와 이성애, GMO와 제3세계 빈곤, 종자 다양성과 식량 민주주의, 곤충의 세계, 인간과 기생충의 공진화, 전염병과 인류의 역사, 정신 질환의 병리학, 동화의 역할, 세계사에 대한 우리의 오만과 편견과 무지, 아래로부터의 역사 해석, 좋은 사회에 대한 고민으로 끝을 맺는다. 마지막 책을 덮으면서, 독자는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놀라게 될지도 모른다.

자, 책의 뒤를 밟아, 나만의 연쇄를 시작해 보면 어떨까. 그 끝이 어디가 될지 열어 놓은 채로 말이다.

4. 책 속에서(“견딜 수 없는 나를 읽다” 95~97쪽)

아우슈비츠에서 돌아와 22년이 지난 어느 날, 레비는 우연히 수용소에서 만났던 독일인 필러와 연락이 닿습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독일인과 대화하고 싶었던 레비는 처음엔 자신의 책 『이것이 인간인가』를 보내 주며 적극적으로 다가갑니다. 하지만 필러가 아우슈비츠를 증언한 그 책에 대해 감동을 받았다면 만나자고 하자 그는 뒤로 물러납니다. 나치의 범죄를 묵인하고 수혜를 입은 인물이 ‘원수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신뢰’를 말하며 ‘과거의 극복’ 운운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까닭이지요.

서경식은 이 일화를 전하며 자신이 만난 일본의 필러들을 떠올립니다. 식민지 지배에 대해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고는 “왜 그렇게 화가 났습니까?” “언제까지 사과하면 되지요?” 하고 묻는 이들, “어느 나라 사람”이라는 구별에 구애받지 않고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은가요? 당신이 ‘일본인’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건 오히려 당신 자신이 과잉된 민족의식에 집착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하며 보편적 휴머니즘을 내세우는 이들에게 그는 분노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도 그 불안과 분노, 슬픔의 원인과 관련되었을지 모른다는 상상을 해보지도 않는다.

따지고 보면 그런 필러들은 독일과 일본뿐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몇 해 전 어느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전라도 출신인 한 분이 광주민주화운동이 남긴 개인적인 상처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평소 부잣집 사모님으로만 보였던 이가 그런 말을 하니 모두들 깜짝 놀랐지요. 그이는 어디서 이런 말을 해봐야 이해는커녕 나만 이상해지더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좌중은 조용해졌고, 나는 그 침묵이 고마웠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 일은 잘못됐지만 이제 민주화도 됐고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원망에서 벗어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욱하지 말자는 평소의 다짐도 잊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만, 자리가 과한 뒤에도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 처음 말을 꺼낸 이는 더 참담했지요. 하지만 그이는 두 번 다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만적인 폭력에 의해 상처 입은 이들은 말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외롭고 초라해지는 이상한 현실 앞에서 침묵을 택합니다. 대신 입을 여는 것은 필러들입니다. 언제까지 과거에 얽매일 겁니까, 정말 나쁜 놈은 처벌받아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몰랐잖아요,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건 이해해 줘야지요, 분노도 원망도 그만 내려놓으세요……. 자신의 말이 상처 입은 이들의 상처에 새로 소금을 뿌리고 모욕을 더하는 일이라는 걸 그들은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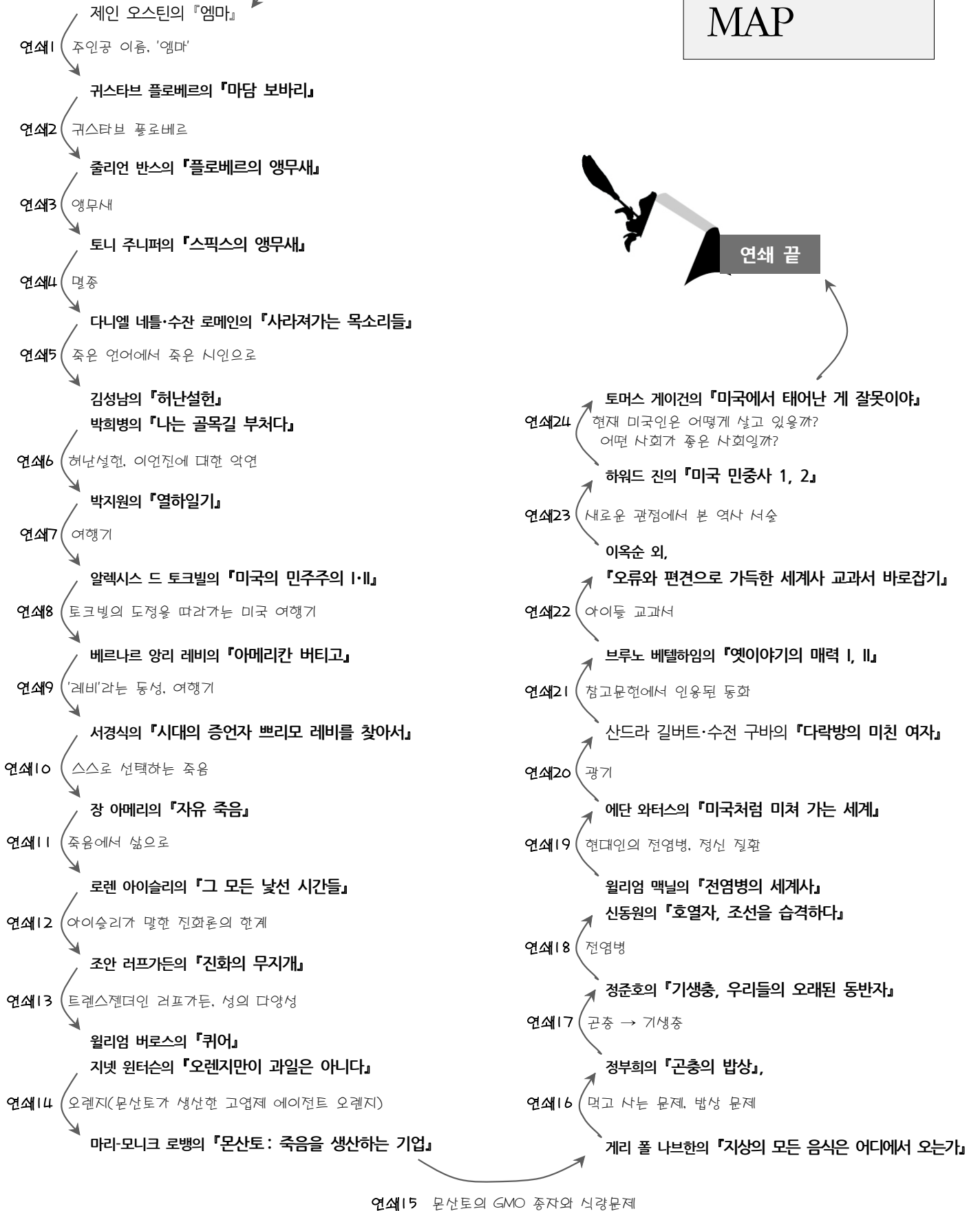
프리모 레비가 죽음의 수용소에서 돌아와 한 일은, 바로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일깨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이 독일인에게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의 죄를 묻는 것이며 인간으로서 인간인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었지요. 피해자인 레비는 가해자인 나치와 동조자인 필러들에게 죄를 묻지만, 그들과 똑같은 인간이기에 “인간인 것에 죄가 있다고” 느낍니다. 때문에 그는 그런 짓을 한 자들은 인간이 아니라고 말하는 대신, 이것이 인간이라고, 그러니 이런 인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가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아우슈비츠를 증언한 이유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이 인간이 만든 이 세계의 지옥을 인정하고 대면하기를, 그리하여 자기 안의 지옥을 정면으로 응시하기를 바랐던 것이지요. 그 지옥에 머무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는 이 세상에 그런 지옥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인간이라는 말을 쓸 수 없을 만큼 끔찍해진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연쇄 시작

마녀의 연쇄 독서 MAP

연쇄 끝



목차

- 글쓴이의 말 • 6
- 프롤로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책들의 연쇄 • 9
- 연쇄1** | 그 여자의 이름으로 • 16
귀스타브 플로베르 지음, 김화영 옮김, 『마담 보바리』, 민음사, 2000
- 연쇄2** | 땡큐! 플로베르 • 23
줄리언 반스 지음, 신재실 옮김, 『플로베르의 앵무새』, 열린책들, 2005
- 연쇄3** | 그 랫던 앵무새는 다 어디로 갔을까? • 32
토니 주니퍼 지음, 이종훈 옮김, 『스픽스의 앵무새』, 서해문집, 2005
- 연쇄4** |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서 • 41
다니엘 네틀·수잔 로메인 지음, 김정화 옮김, 『사라져가는 목소리들』, 이제이북스, 2003
- 연쇄5** | 나는 나를 벗할 뿐 남을 바라지 않노라 • 51
김성남, 『허난설현』, 동문선, 2003
박희병, 『나는 골목길 부처다』, 돌베개, 2010
- 연쇄6** | 조선의 문장 종결자 박지원 • 61
박지원 지음, 김혈조 옮김, 『열하일기』 전3권, 돌베개, 2009
- 연쇄7** | 민주주의의 두 얼굴을 말하다 • 71
알렉시스 드 토크빌 지음, 임효선·박지동 옮김, 『미국의 민주주의 I·II』, 한길사, 1997
- 연쇄8** | 어지러워도 버티자고! • 81
베르나르 앙리 레비 지음, 김병욱 옮김, 『아메리칸 버티고』, 황금부엉이, 2006
- 연쇄9** | 건딜 수 없는 나를 읽다 • 91
서경식 지음, 박광현 옮김, 『시대의 증언자 빠리모 레비를 찾아서』, 창비, 2006
- 연쇄10** | 나에게 죽을 자유를 달라! • 101
장 아메리 지음, 김희상 옮김, 『자유 죽음』, 산책자, 2010
- 연쇄11** | 낮선 시간들에서 삶을 발굴하다 • 110
로렌 아이슬리 지음, 김정환 옮김, 『그 모든 낮선 시간들』, 강, 2008
- 연쇄12** | 오버 더 레인보우! • 119
조안 러프가든 지음, 노태복 옮김, 『진화의 무지개』, 뿌리와이파리, 2010
- 연쇄13** | 낮설지만 매혹적인 • 129
윌리엄 버로스 지음, 조동섭 옮김, 『퀴어』, 펭귄클래식코리아, 2009
지넷 윈턴슨 지음, 김은정 옮김, 『오렌지만이 과일은 아니다』, 민음사, 2009
- 연쇄14** |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오렌지 • 139
마리-모니크 로벵 지음, 이선혜 옮김, 『몬산토: 죽음을 생산하는 기업』, 이레, 2009
- 연쇄15** | 잘 먹고 잘 싸우기 • 148
케리 폴 나브한 지음, 강경이 옮김, 『지상의 모든 음식은 어디에서 오는가』, 아카이브, 2010
- 연쇄16** | 밥상을 부탁해! • 158
정부희, 『곤충의 밥상』, 상상익숲, 2010
- 연쇄17** | 진화의 달인에게 배우다 • 167
정준호, 『기생충, 우리들의 오래된 동반자』, 후마니타스, 2011
- 연쇄18** | 역사, 아픈 만큼 성숙해지다 • 176
윌리엄 맥닐 지음, 김우영 옮김, 『전염병의 세계사』, 이산, 2005
신동원, 『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 역사비평사, 2004
- 연쇄19** | 신종 전염병, 정신 질환 • 186

- 에단 와터스 지음, 김한영 옮김, 『미국처럼 미쳐 가는 세계』, 아카이브, 2011
- 연쇄20** | 미친 여자들에게 미치다 • 195
산드라 길버트·수전 구바 지음, 박오복 옮김, 『다락방의 미친 여자』, 이후, 2009
- 연쇄21** | 옛날이야기에서 배운다 • 205
브루노 베텔하임 지음, 김옥순·주옥 옮김, 『옛이야기의 매력 I, II』, 시공주니어, 1998
- 연쇄22** | 잃어버린 세계사를 찾아서 • 214
이옥순 외, 『오류와 편견으로 가득한 세계사 교과서 바로잡기』, 삼인, 2007
- 연쇄23** | 읽은 대로 살기 위하여 • 223
하워드 진 지음, 유강은 옮김, 『미국 민중사 1, 2』, 이후, 2006
- 연쇄24** | 더 나은 삶을 꿈꾸며 • 233
토머스 게이건 지음, 한상연 옮김,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 부키, 2011
- 에필로그** | 끝나지 않은 연쇄를 위하여 • 243